

유란시아서

<< [제 106 편](#) | [부분](#) | [내용](#) | [제 108 편](#) >>

제 107 편

생각 조절자의 기원과 성품

107:0.1 (1176.1) **우주의 아버지는 파라다이스에, 우주들의 바로** 한가운데에 몸소 거하지만, 또한 시간 지역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의 지성 속에, 공간 세계에 실제로 계시니, 그가 **신비의 훈계자**로서 그들에게 깃들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행성에서 사는 필사 아들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동시에 아주 가깝게 관계되어 있다.

107:0.2 (1176.2) **조절자**는 사람의 혼 속에서 **아버지**의 구체적 사랑이 사실이 된 것이다. 그들은 필사 지성 속에 갇혀 있는 약속,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가졌다는 진정한 약속이다. **조절자**는 사람의 완전하게 된 최후자 인격의 본질이며, 사람은 시간 세계에서 이 본질을,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성한 계심에 실제로 도달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숭한 우주까지 올라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에 이르는 신다운 기법을 점진적으로 통달하는 동안에, 미리 맛볼 것이다.

107:0.3 (1176.3)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한 것 같이 사람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였고, 것처럼 예정된 천상의 운명을 이루는 데 사람에게 체험하는 협동자가 되려고 **조절자**로서 내려오셨다. 사람의 지성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分身)은, 사람이 이 신다운 **조절자**와 손잡고 **우주의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보장이며, 그는 사람이 육체로 사는 시절에도 그를 찾고 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07:0.4 (1176.4) **창조 아들을** 본 필사자는 누구든지 **우주의 아버지**를 보았고, 신다운 **조절자**가 깃드는 사람에게는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깃든다. 깃드는 **조절자**의 인도함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고서 따르는 필사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조절자**의 계심을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의식하는 것이다. **조절자**가 사람의 진화하는 혼과 영원히 융합하는 것은 우주에서 신의 동료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합함을 사실로 체험하는 것이다.

107:0.5 (1176.5) **하나님**처럼 되고 **파라다이스**에 이르러서, 거기서 신의 실제 몸 앞에서 신이 준 선물의 무한한 근원을 예배하려는, 가라앉힐 수 없는 그 열망과 그침 없는 갈망을 사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조절자**이다. **조절자**는 필사자인 아들과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실제로 연결하고, 그를 **아버지**께로,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살아 있는 계심이다. **조절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보편성과 반대로 사람이 많이 치우친 정도에 따라 생기는 엄청난 우주 긴장을 우리에게 보상하여 평준화시키는 존재이다.

107:0.6 (1176.6) **조절자**는 유한한 인간의 지성 속에 갇혀 있는, 한 무한한 존재의 절대 본질이며, 그러한 필사자가 선택하는 대로, 궁극에 **하나님**과 사람의 이 임시 결합을 완성하고 끝없이 우주에 봉사하기 위하여 새 종류의 존재를 진정하게 현실화한다. **조절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라는 진실을 사실로 만드는 신다운 우주 실체이다.

조절자는 사람의 틀림없는 우주 나침반이요, 언제나, 어김없이 사람의 혼을 **하나님** 방향으로 가리킨다.

107:0.7 (1177.1) 진화하는 여러 세계에서, 의지(意志)를 가진 인간은 존재하면서 세 가지 일반적 발전 단계를 거친다: **조절자**가 도착할 때부터 사람이 비교적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유란시아**에서는 약 스무 살까지, 훈계자를 때때로 생각 변경자라 일컫는다. 이때부터 분별의 나이, 약 마흔에 이르기까지, **신비의 훈계자**를 **생각 조절자**라 부른다. 분별의 나이에 이른 때부터 육체를 벗어나기까지, 그들은 흔히 생각 통제자로서 언급된다. 필사 생명의 이 세 단계는 지성을 복사(複寫)하고 혼을 진화시키면서 **조절자**가 진보하는 세 단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

1. 생각 조절자의 기원

107:1.1 (1177.2) **생각 조절자**는 최초의 신의 본질에서 생겼으므로, 그들의 성품과 기원에 대하여 아무도 주제넘게 권위 있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겨우 **구원자별**의 전통과 **유버르사**의 의견을 나눠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만 우리가 이 **신비의 훈계자**, 그리고 대우주에 두루 그들과 관계된 존재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107:1.2 (1177.3) **생각 조절자**가 어떤 방식으로 수여되는가에 관하여 다채로운 의견이 있어도, 그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주의 아버지**, **첫째 근원 중심**에서 직접 비롯한다고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실제 계심을 구성하는, 조각이 된 존재이다.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많은 동료와 더불어, **조절자**는 묻어지지 않고 섞이지 않은 신성(神性), 제한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은, 신의 일부이다. 조절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한, **조절자는 하나님**이다.

107:1.3 (1177.4) **첫째 근원 중심**의 절대성을 벗고 그들이 언제 따로 존재를 시작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몇이나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지성에 갇히려고 시간 세계의 행성에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생애에 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삼자일치 운명을 성취하기까지, 그리고 이를 포함한 그들의 우주 진보에 대하여 얼마큼 익숙하다: 어떤 필사 승천자와 융합하여 성격을 얻는 것, **우주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성격을 얻는 것, 또는 **생각 조절자**들의 알려진 배치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107:1.4 (1177.5)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조절자**와 융합할 후보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절자**들이 항상 개별화되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조절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짚어보려 하는 데 우리가 똑같이 틀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 바로 **하나님**처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성품을 가진 이 분신들은 실존적으로 무한한지 모른다.

107:1.5 (1177.6) **생각 조절자**가 생겨나는 기법은 **우주의 아버지**의 밝혀지지 않은 기능의 하나이다. 우리는 **첫째 근원 중심**의 다른 동료 **절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 분신들의 생산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를 가졌다. **조절자**는 다만, 영원히, 신이 준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같다.

107:1.6 (1177.7) 융합하는 사람과 가지는 관계에서 **조절자**는 하늘 같은 사랑과 영적 봉사를 드러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선언을

충분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 초월적 봉사에 더하여, **유란시아** 필사자에게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 많은 것이 일어난다. 시간 세계에 사는 사람의 인격의 일부가 되라고 **우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정말로 벌어지는지 우리가 넉넉히 이해하지도 못한다. **파라다이스** 최후자들이 올라가면서 진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과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이 협동 관계에 본래 있는 가능성을 다 드러내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아버지** 분신은 절대적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인간에게 절대적 **하나님**이 주는 선물임이 틀림없다.

107:1.7 (1178.1) **우주의 아버지**가 그의 선(先)인격 신을 조각 내는 것처럼, **무한한 영**도 영 융합 시리즈에 속하는 살아남는 필사자의 진화하는 혼에 깃들고, 실제로 그와 융합하려고 자기의 선(先)지성 영의 부분을 개체로 만든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의 성품은 이렇게 조각 낼 수 없다. **최초의 아들**의 영은 퍼지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성격을 가진다. **아들**이 융합한 사람은 **영원한 아들**의 **창조 아들**이 개별화하여 주신 영과 뭉쳐진다.

2. 조절자의 분류

107:2.1 (1178.2) **조절자**는 처녀 존재로서 개체가 되며, 모두가 해방되거나, 융합하거나, 아니면 인격화된 훈계자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일곱 계급의 **생각 조절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다른 계급들을 언급한다:

107:2.2 (1178.3) 1. 처녀 조절자, 영원히 살아남으려는 진화하는 후보자의 지성 속에서 첫 임무에 봉사하는 자. **신비의 훈계자**들의 신다운 성품은 영원히 한결같다. **신별**에서 처음에 나갈 때, 그들의 체험적 성품이 또한 한결같다. 그 뒤에 체험의 차이는 우주에서 봉사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는 결과이다.

107:2.3 (1178.4) 2. 상급 조절자. 시간 지역에 사는 사람의 신분, 그리고 **셋째 근원 중심**이 지역 우주에서 나타나는, 영의 개별화된 부분, 이 둘 사이에 마지막 융합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의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나나 몇 생애 동안 봉사한 자.

107:2.4 (1178.5) 3. 최상 조절자. 진화 세계에서 시간 속에 겪는 모험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그 인간 짝이 어떤 까닭으로 영원히 살아남지 않겠다고 거절한 그러한 훈계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진화 세계에서 다른 필사자의 다른 모험에 배치된 훈계자. **최상 조절자**는 처녀 훈계자보다 더 신답지는 않아도 체험을 더 겪었으며, 체험을 적게 가진 **조절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 지성 속에서 할 수 있다.

107:2.5 (1178.6) 4. 사라진 조절자. 여기서 **신비의 훈계자**의 생애를 따라가는 우리의 노력에 중단이 생긴다. 넷째 단계의 봉사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우리는 확실치 않다. **멜기세덱**들은 넷째 단계 **조절자**들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파견 임무로 일한다고 가르친다. **외톨 사자들**은 이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참신한 교제 기간을 즐기면서, **첫째 근원 중심**과 한 몸이 되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리고 **조절자**가 두루 계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총 우주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주 가능성이 있다.

107:2.6 (1178.7) 5. 해방된 조절자. 진화하는 구체의 필사자를 위하여 시간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에서 영원히 풀려난 **신비의 훈계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른다.

107:2.7 (1179.1) 6. 융합한 조절자 — 최후자. 초우주에서 하늘 가는 인간과 하나가 된 자,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에 속하는 승천자, 시간 지역에서 영원에 이르는 승천자의 짝. **생각 조절자**는 보통, 시간 지역의 하늘 가는 필사자와 융합하며, 살아남는 그런 필사자와 함께 **승천자별**에서 출입이 기록된다. 그들은 하늘 가는 존재의 길을 따른다. 하늘 가는 진화하는 혼과 융합하고 나서, 그 **조절자**는 우주의 절대적 실존 수준에서, 하늘 가는 성격자와 함께 기능적으로 연합하는 유한한 체험 수준까지 옮겨 가는 듯하다. 실존적인 신다운 성품의 모든 특성을 지니면서, 융합한 **조절자**는 살아남는 필사자의 하늘 가는 생애와 분해할 수 없이 연결된다.

107:2.8 (1179.2) 7. 인격이 된 조절자. 육신화한 **파라다이스 아들과** 함께 봉사한 자, 그리고 필사자에게 깃드는 동안에 특별한 공훈을 세웠지만, 살아남기를 거부한 주체에게 깃들었던 많은 **조절자**. 우리는 그런 **조절자**들이 배치받은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추천을 받아서 인격을 얻는다고 믿을 이유를 가지고 있다.

107:2.9 (1179.3)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 조각들을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우주에 배치되는 데 따라서, 개별 필사자에게 깃드는 데 성공한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융합할 필사 후보자의 종족 계보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

3. 조절자의 신별 집

107:3.1 (1179.4) **신비의 훈계자**의 파송 · 관리 · 지휘, 그리고 모두 일곱 초우주의 근무로부터 돌아오는 것에 관계된 모든 우주 활동은 신성한 구체 **신별**에 집중된 듯하다. 내가 아는 한, 오직 **조절자** 및 **아버지**의 다른 개체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구체에 가 본 적이 없다.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선(先)인격 존재가 **신별**을 **조절자**들과 함께 고향 구체로서 쓰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는 이 동료 존재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비의 훈계자**들의 현재 및 미래 봉사에 관계될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모른다.

107:3.2 (1179.5) **생각 조절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들은 기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영역, **신별**로 돌아간다. 아마도 이 체험의 일부로서, 이 비밀 구체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된 **아버지** 신성의 특화된 명시만 아니라,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 성격과 실제로 접촉이 있다.

107:3.3 (1179.6) **파라다이스**의 일곱 비밀 구체 모두에 관하여 우리는 무언가 알지만, 다른 데보다 **신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적다. 높은 영적 서열에 있는 존재들은 신에게서 오직 세 가지 명령을 받는데, 다음과 같다:

107:3.4 (1179.7) 1. 언제나 자기의 선배와 상관들의 체험과 자질에 알맞는 존경을 보일 것.

107:3.5 (1179.8) 2. 언제나 자기의 후배와 부하들의 한계와 경험 부족을 헤아릴 것.

107:3.6 (1179.9) 3. 결코 **신별** 어디에나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107:3.7 (1179.10) 내가 **신별**로 가는 것은 아주 쓸모 없으리라고 나는 자주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인격이 된 **조절자**와 같은 자를 제외하고, 어떤 거주하는 존재도 나는 아마 볼 수 없을 터이고, 나는 **조절자들**을 다른 데서 본 적이 있다. **신별**에는 내게 진정한 가치나 이익이 되는 아무것도, 나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인 아무것도 없다고 아주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가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107:3.8 (1180.1) 우리가 **신별**로부터 **조절자**의 성품과 기원에 관하여 거의 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수많은 다른 근원으로부터 정보를 모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식이 유익하려면 이 축적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서로 관련 짓는 것이 필요하다.

107:3.9 (1180.2) **생각 조절자**가 나타낸 용맹과 지혜는 그들이 엄청난 규모와 범위의 훈련을 거쳤음을 가리킨다. 그들이 인격자가 아니니까, **신별**의 여러 교육 기관에서 이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인격화된 독특한 **조절자들**은 의심할 것 없이, **신별**에 있는 **조절자** 훈련 학교들의 직원을 구성한다. 우리는 중앙에 있는 이 감독하는 군단을, 자기 우주 영역의 종족과 민족들에게 일곱 번 자신 수여를 마친, 지금 **미가엘** 계급의 첫 **파라다이스 아들**의 **조절자**, 인격화된 **조절자**가 주관한다는 것을 안다.

107:3.10 (1180.3) 인격이 되지 않은 **조절자**에 관하여 우리는 정말로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오직 인격이 된 계급들과 접촉하고 통신을 가진다. 이들은 **신별**에서 이름을 받고, 반드시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알려진다. 인격이 된 **조절자들**은 **신별**에 영구하게 주소를 가지며, 그 신성한 구체가 그들의 집이다. 그들은 오직 **우주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거처를 떠난다. 거의 아무도 지역 우주의 영토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더 많은 무리가 중앙 우주에 있다.

4. 조절자의 성품과 계심

107:4.1 (1180.4) **생각 조절자**가 신답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기원의 성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원 · 무한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본질, 보편적으로 계시는 그러한 절대 본질의 조각 안에 담길 수 있는, 신의 모든 잠재 속성의 본질을 그렇게 순수한 신성이 품는 것이 대단히 있음직하다.

107:4.2 (1180.5) **조절자**의 실제 근원은 무한한 것이 틀림없고, 진화하는 필사자의 불멸하는 혼과 융합하기 전에는 **조절자**의 실체가 절대성에 가까움이 틀림없다. **조절자**는 보편적 의미에서, 신의 의미로 보아 **절대자**는 아니지만, 조각난 성품의 가능성으로 보면 그들은 아마 참으로 절대적인 자이다. 그들은 보편성이 제한되어 있지만, 성품은 제한되지 않았다. 바깥으로 뻗는 성질은 한정되어 있지만, 의미 · 가치 · 사실의 집중도 면에서 **조절자는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신이 주신 선물을 **아버지**의 제한된 절대 분신이라고 일컫는다.

107:4.3 (1180.6) 아무 **조절자**도 **파라다이스 아버지**께 불충한 적이 없다. 하위 계급의 성격 생물은 때때로 불충한 동료들과 다투어야 할지 모르지만, **조절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 봉사하고 우주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드높은 영역에서, 그들은 가장 높고 그르칠 수 없다.

107:4.4 (1180.7) 인격을 얻지 못한 **조절자**들은 오로지 인격이 된 **조절자**에게만 눈에 보인다. 나의 계급, **외톨 사자**는, **영감 받은 삼위일체 영**과 함께, 영적 반응 현상의 수단으로 **조절자**의 계심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세라핌조차 사람의 물질 지성 속에 혼계자의

계심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 영의 빛을 때때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조절자**가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참 계심을 실제로 식별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의 성품은 진화 세계에서 온, 하늘 가는 필사자의 융합된 인격과 뭉친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높이, 순전히, 신에게서 기원과 성품을 가졌음을 뚜렷이 가리킨다.

107:4.5 (1181.1) 이 신다운 계심에 따르는, 특징이 되는 빛, 영의 빛남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 조절자**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왔다. **네바돈** 우주에서 이 **파라다이스** 광채는 널리 “표시등”으로 알려져 있다. **유버르사**에서는 이를 “생명의 빛”이라 부른다. **유란시아**에서 이 현상은 때때로 “세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 언급되었다.

107:4.6 (1181.2) **우주의 아버지**께 도달한 모든 존재에게는 인격이 된 **생각 조절자**들이 눈에 보인다. 어떤 단계에 있는 **조절자**도, 모든 다른 존재 · 개체 · 영 · 성격자, 그리고 영의 명시와 함께, **파라다이스** 신들에 기원이 있고 대우주의 주요 정부를 주관하는 **최상 창조 성격자**들이 언제나 식별할 수 있다.

107:4.7 (1181.3) **조절자**의 깃드심의 참된 중요성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너희의 유한한 필사 성품 속에 깃들고 그와 융합하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신, **우주의 아버지**의 절대 분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가? 필사 인간이 전체 우주의 실존적 원인의 실제 분신과 융합할 때, 전례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협동 관계의 운명에 결코 아무런 한계가 지워질 수 없다. 영원 속에서, 사람은 객관적 신의 무한성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주관적 분신의 끝없는 가능성도 발견할 것이다. **조절자**는 필사 인격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이 하늘 같은 계시(啓示)는 결코 그칠 수 없으니,

이는 **조절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필사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5. 조절자의 지성 소유

107:5.1 (1181.4) 진화하는 필사자는 지성이 영과 물질 사이에서 우주가 중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쉬운데, 이는 정말로 너희가 식별할 수 있다시피 중재가 지성의 주요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 조절자**가 지성을 가진 것을 인간이 파악하기가 몹시 어려우며, 이는 **조절자**가 실체의 절대 수준에서 **하나님**의 분신이고, 이것이 선(先) 인격일 뿐 아니라 또한 어떤 에너지와 영의 분산보다도 앞서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영의 구별이 있기 전에 일원론 수준에서는 지성의 중재 작용이 전혀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조정할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07:5.2 (1181.5) 계획하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자**는 지성에 비례하여 자아의 힘을 가졌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서로, 다시 말해서 첫째, 즉 처녀 집단보다 높은 온갖 형태의 훈계자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한없는 능력을 소유한다. 그들의 상호 교통의 성질과 취지에 관하여 우리는 밝힐 것이 거의 없는데, 이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틀림없이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인격화될 수 없을 것이다.

107:5.3 (1181.6) **생각 조절자**가 지성을 가진 것은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지성을 가진 것과 같다** — 이것은 **합동 행위자**의 여러 **지성**에게 조상이 되는 무엇이다.

107:5.4 (1181.7) **조절자** 속에 있다고 가정하는 종류의 지성은 수많은 다른 서열의 선(先)인격 존재의 지성 자질과 비슷함이 틀림없는데, 이 존재들은 짐작하건대, 마찬가지로 **첫째 근원 중심**에서 기원을 가진다. 이 서열들 가운데 다수가 **유란시아**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지성을 소유한 품질을 드러낸다. 또한 최초의 **신의** 이러한 개체화는 수많은 진화 종류의 비필사 존재들, 그리고 그러한 신의 분신과 융합하는 능력을 개발한, 제한된 수의 비진화 존재하고도 뭉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107:5.5 (1182.1) 한 **생각 조절자**가 살아남는 인간의 진화하는 혼, 불멸의 상물질 혼과 융합될 때, 하늘 가는 그 필사자가 우주에서 진보하는 영 수준에 이를 때까지, **조절자**의 지성이 그 인간의 지성과 따로 지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07:5.6 (1182.2) 하늘 가는 체험을 거친 최후자 수준에 이르고 나서 이 여섯째 단계 영들은, 그러한 하늘 가는 성격자의 신 단계와 인간 단계 사이에 연락자로서 이전에 활동했던 필사자의 지성과 **조절자**의 지성의 어떤 단계가 연합됨을 나타내는, 어떤 지성 요인을 변화시키는 듯하다. 체험하는 이 지성의 품질은 아마도 진화하는 신 — **최상 존재** — 의 체험 자질을 “최상으로 변화시키고” 나중에 확대한다.

6. 순수 영인 조절자

107:6.1 (1182.3) 인간의 체험 속에서 **생각 조절자**와 마주치다시피, **조절자**는 영 영향의 계심과 인도함을 드러낸다. **조절자**는 정말로 하나의 영(靈), 순수한 영이지만, 영보다 더한 것이다. 우리는 결코 **신비의 훈계자들**을 흡족하게 분류할 수 있는 적이 없다. 조절자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같다는 것이 전부이다.

107:6.2 (1182.4) **조절자**는 사람이 영원을 얻을 가능성이며, 사람은 **조절자**가 인격을 얻을 가능성이다. 너희의 개별 **조절자**는 너희의 현세의 신분을 영원하게 만드는 희망을 가지고 너희를 영답게 만들려고 일한다. **조절자**는 영 **아버지**의 사랑, 아름답고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흠뻑 젖어 있다. 그들은 참으로, 신답게, 너희를 사랑한다. 영의 희망을 가지고 사람의 지성 안에 갇혀 있는 포로이다. 외로움이 끝나고 너희와 함께 물질적 의복과 시간의 옷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너희의 필사 지성이 신성(神性)에 이르기를 몹시 바란다.

107:6.3 (1182.5)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이르는 길은 영에 도달하는 길이요, **조절자**의 성품은 **우주의 아버지**의 영적 성품의 계시를 충실하게 펼쳐 보일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올라간 뒤에, 영원한 생애의 최후자 이후 단계에서, 영으로 하지 않는 다른 봉사에서 **조절자**는 옛날의 인간 짝과 아마도 접촉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에 올라가는 것과 최후자로 사는 생애는, **하나님**을 알고 영답게 변화하는 필사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절자**가 베푸는 영적 봉사가 협동하는 관계이다.

107:6.4 (1182.6) 우리는 **생각 조절자**가 영, 순수한 영, 짐작하건대 절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절자**는 또한 순전한 영 실체보다 더 큰 무엇임이 틀림없다. 지성을 가졌다는 추측 외에, 또한 순수 에너지의 요인들도 있다. **하나님**이 순수 에너지와 순수 영의 근원임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그의 분신들이 이 두 가지임을 깨닫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조절자**가 **파라다이스** 섬의 순간적 · 보편적 인력 회로를 타고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107:6.5 (1182.7) 이처럼 **신비의 훈계자**가 온 우주의 물질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수수께끼이다. 그들이 물질 인력(引力) 회로를 타고 대우주 전역에 걸쳐 번쩍이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이 바깥 공간 수준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인력이 있는 자리를 따라서 이 지역들로 분명히 갈 수 있다. 내 계급의 성격자는, 또한 대우주의 경계를 지나서 **합동 행위자**의 지성 회로를 거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바깥 공간에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조절자**들이 계심을 확실히 탐지한 적이 없다.

107:6.6 (1183.1) 그리고, 물질 인력 회로를 이용하지만, 그래도 **조절자**는 물질 창조처럼 그에 지배되지 않는다. **조절자**는 인력으로부터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인력의 조상의 분신이다. 그들은 인력의 출현보다 앞선다고 가정되는 한 우주 수준의 존재에서 조각이 되었다.

107:6.7 (1183.2) **생각 조절자**는 그들이 수여될 때부터 필사 주체가 자연스럽게 죽고 나서 **신별**을 향하여 떠나려고 풀려나는 날까지 조금도 쉬지 않는다. 자기의 주체가 자연사의 문을 거치지 않는 그러한 **조절자**는 이 일시의 휴식조차도 얻지 못한다. **생각 조절자**는 에너지 흡수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에너지요, 가장 높고 신성한 서열의 에너지이다.

7. 조절자와 인격

107:7.1 (1183.3) **생각 조절자**는 인격자가 아니지만, 실재하는 개체이다. 필사자에게 깃드는 동안, 결코 실제로 인격을 갖추지 않지만, 그들은 참으로 완전하게 개별화되었다. **생각 조절자**는 참 인격자가 아니요, 참 실체이다, 온 우주에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순수한 서열의 실체 —

신의 계심 — 이다. 비록 인격은 없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이 분신은 존재로서, 그리고 분신이 필사자에게 현재 베푸는 봉사의 영적 단계에 비취 보아, 때때로 영 개체로서 보통 언급된다.

107:7.2 (1183.4) **생각 조절자**가 의지(意志)하는 특권과 선택하는 힘이 있는 인격자가 아니라면, **조절자**가 어떻게 필사 주체를 고르고 진화 세계에 있는 이 인간에게 깃들려고 자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묻기는 쉬워도, 아마도 온 우주에서 아무 존재도 결코 꼭 맞는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 계급의 성격자, **외톨 사자들**조차, 성격이 아닌 개체에서 의지 · 선택 · 사랑이 부여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107:7.3 (1183.5) **생각 조절자**가 선택하는 모든 **선(先)인격** 수준에서 의지를 가졌음이 틀림없다고 우리는 가끔 추측해 왔다. 그들은 인간에게 깃들려고 자원하고, 사람의 영원한 생애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며,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고 수정하고 대체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진정한 의지(意志)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필사자에게 애정을 가졌고, 우주의 위기에 활동하며,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두가 상당히 의지하는 반응이다. 인간 의지의 분야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상황에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권한의 행사, 어떤 의미에서도 의지에 해당하는 것, 극대화된 결정을 가리키는 행위를 나타낸다.

107:7.4 (1183.6) **조절자**가 의지를 가졌다면, 어쩌서 필사 의지에 굴종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절자**의 의지가 절대 성질이 있기는 하지만, 선(先)인격으로 의지가 표시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의지는 우주 실체의 인격 수준에서 활동하며, 우주에서 두루, 비성격인 것 — 즉 성격이 아닌 것, 성격 밑에 있는 것, 선(先)인격인 것 — 은 존재하는 인격자의 의지와 행위에 늘 민감하다.

107:7.5 (1183.7) 창조된 존재들과 비인격 에너지가 있는 우주에 두루, 우리는 인격과 동떨어져서 뜻 · 의지 · 선택 ·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다. **조절자**와 기타 비슷한 개체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비인격 실체들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이러한 인격의 속성을 구경하지 못한다. **조절자**를 인격 이하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겠고, 그러한 개체를 초월 인격이라고 암시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을 터이나, 그러한 존재를 선(先)인격이라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관참을 것이다.

107:7.6 (1184.1) 우리 계급의 존재에게, 신의 이 분신은 신의 선물이라 알려져 있다. **조절자**는 기원이 신성하다는 것, 그들이 **우주의 아버지**의 거의 무한한 영역에 두루, 모든 물질 인간과 직접 한없이 교통하는 가능성을 **우주의 아버지**가 남겨두었음을 가리키는 그럴듯한 증명이자 시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은 그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성격 안에 **조절자**의 계심이나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 안에서 **조절자**가 간접으로 베푸는 봉사를 통하는 것과 별도이다.

107:7.7 (1184.2) **신비의 훈계자**를 맞아들이는 주인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을,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자가 될 운명을 가진 사람, 의지를 가진 진화된 인간을 제외하고, 아무 계급의 존재에게도 이처럼 깃들지 않는다.

107:7.8 (1184.3) [오르본톤의 한 외톨 사자가 발표하였다.]